

제안요청서

제목 :

90세 이상 독거노인을 위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 확대 요청

제안 배경 :

저는 전남 고흥군 도화면 가화리 여의천 마을에 95세의 장모님이 홀로 계십니다. 그런데 아내까지 소뇌위축증이라는 희귀난치질환으로 4년째 와상 상태인바 수 년 동안 찾아뵙지도 못하고 모시고 와서 같이 살 수도 없는 형편이어서 전화 통화로 안부만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개월 전부터 날씨가 건조해서 그런지 등이 가려워서 방법을 못 찾고 있다고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나이트 몸을 이끌고 보건소를 가도 방법이 없고 고흥 시내에 운영 중이던 피부과도 문을 닫았고 고흥종합병원에도 피부과는 없어 어르신이 피를 내어 개인택시 영업자에게 부탁하여 여수에 있는 피부과 병원에 다녀와서 피부과 약을 처방받아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을 처방 받아 오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먹는 약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바르는 연고는 답이 없어 어르신 말씀대로 하자면 별 짓을 다해서 바르긴 했는데 눈물이 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무리 육체적으로 건강하신다도 하여도 나이가 95세 이상이면 버스 타고 왕래 하시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고, 또 아무리 정신이 맑다고 하셔도 나이가 그 나이면 건망증도 있을 것이고 정확하게 표현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상대적으로는 나이가 95세 이상인 어르신이 혼자 오시면 무시하는 경향도 있어 여러모로 어려움 천지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일이고 대한민국 농어촌 및 도시 독거노인들의 인간적인 복지를 위해 몇 가지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 도서지역은 도시지역보다 고령화율이 사상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90세 이상 독거노인의 생활 안정과 건강 관리가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가 아닌 경우는 더더욱 제도적 지원을 받기 어려워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접근성 부족, 가족 돌봄 부재, 생활 지원 미비, 부실 식사 등으로 독거노인의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

1. 기초수급자·차상위 대상자가 아니면 돌봄 서비스 지원에서 배제되는 현실
2. 요양등급 미부여로 인해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 불가
3. 농촌 지역 의료기관 부족으로 병원 진료·동행이 어려움
4. 식사 준비 곤란으로 영양 불균형 및 건강 악화 위험
5. 목욕(보습), 청소, 빨래 어려움으로 위생상태 불량으로 질병 초래

제안 내용 :

1. 노인돌봄서비스 확대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비슷한 개념의 90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소득·재산 기준과 무관하게 바우처(돌봄) 서비스 제공(격일 3시간 이상)
 - 일상생활 지원(목욕, 청소, 세탁, 간단한 집안일) 및 정서적 교류 강화
2. 병원 동행 지원
 - 지자체 차원의 전담 인력 또는 자원봉사단을 구성하여 정기 검진 및 진료 시 병원 동행 서비스 제공
 - 교통 취약 지역을 고려한 차량 지원 체계 마련
 - 정형외과 물리치료 순회서비스
3. 반찬·식사 지원 서비스
 - 영양 균형을 고려한 반찬 배달 서비스 확대
 - 지역 사회단체·복지관과 연계하여 주 2~3회 정기적 식사 지원
4. 긴급 돌봄 체계 구축
 - 독거노인 건강 이상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긴급 연락망 구축
 - 마을 이장, 주민자치위원장, 부녀회장과 복지담당 공무원과 연계한 신속

대응 체계 마련

기대 효과 :

1. 초고령 독거노인의 생활 안정과 건강 증진
2. 고령화·지방소멸 시대에 맞는 맞춤형 복지 모델 구축
3. 지역사회 돌봄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 참여 확대

결론 :

군 단위 지역의 특수한 인구 구조와 복지 사각지대를 고려할 때, 90세 이상 독거노인을 위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는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지역사회 존속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 정책입니다. 이에 적극적인 제도 마련과 지원 확대를 요청드립니다.

2026. 5. .

이 은 택

010-5788-6099